

신행통일 사원경제 불탐불학

# 봉축 학술행사 다채

## 동국대 문화연·불교학회등 7곳 준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학술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각 학술단체의 춘계학술행사와 맞물려 열리는 봉축 학술행사는 예년에 보통 10여건 이상이 열렸으나, 올해는 그간 학술행사의 시기적인 편중에 대한 우려와 내실있는 학술연구를 위해 7건의 학술행사가 차분하게 준비 중에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은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을 주제로 오는 5월4일 학술세미나를 갖고 불교신

행을 학술적으로 점검한다. 권기중원장이 발제강연을 하고, 강건기교수(전북대)가 '한국불교의 신행형태', 채인환스님(동국대교수)이 '경전에 나타난 불교신행'을, 정병조교수(동국대)가 '불교신행의 새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5월20일 부산 천태종 삼광사에서 '53불살 조상(聖像)봉안 구축'을 주제로 '사원경제화상'을 주제로 오는 5월4일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에는 '53불 신앙과 천태종'(김영태), 법화경과 탐과 신앙'(이영자), '현존 다층탑신 조상 봉축의 사적 조명'(홍운식), '구축된 다면탑의 한국 불교사적 고찰'(최상식)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지난달 10일 청림한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생산불교를 위해 '사원경제화상화 방안'을 주제로 4월28일 청림가람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시불교의 생산관'(정인), '대승불교의 생산관'(곽민연),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김용철),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영담) 등이 발표된다.

미술의 해를 맞는 불교미술계도 봉축 학술회의를 마련한다. 동국미술협회(회장 허길용)는 4월25일 '불교미술 그 전통과 현대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석정스님의 '불화의 맥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최완수씨의 '한국전통미

술의 특징' 등 5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한편 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박희)는 4월21일 조계사 문화관에서 '21세기 인류문명의 진화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새시대를 여는 불교의 역할을 조망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희섭 변호사가 '21세기 인류문명의 진화'를, 현승스님(해인사)이 '21세기 한국사회의 진화와 불교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이밖에 평불협(회장 원주)과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원장 해남)도 봉축 학술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평불협은 초파일 기념행사의 하나로 '남북한의 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불전국역연구원은 21세기를 대비한 불전국역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과학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요**

**문** 스님께서는 과학과 종교를 별개의 차원으로 보지 않으시고 대신 심상과학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것은 '과학의 발달이 결국 종교적인 차원에 다다르게 된다'는 뜻인지요?

**답** 과학이라는 말, 종교라는 말은 다 이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과학이고, 어디서부터는 종교라고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령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대로 과학이라 한다면 틀린 말일까요?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가르침의 실천이라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생활과 과학이 별개 아니고 생활과 종교가 따로따로일 수 없듯이 과학과 종교도 틀어집니다. 다만 구별하여 구분해서 말한다면 과학은 물질세계의 부분부분을 알아내려는 노력이고 종교는 전체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과거에 인간이 모던한 것을 지금은 왜냐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개구리 알 하나가 깨어 올챙이가 되고 다시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요즘 과학이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가 있을

**주인공에 놓는법을 잘 모르는데**

**문** 스님의 지상담론을 열심히 읽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라'하시는데 놓는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늘 말하지만 일체는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매사에 착을 두고 육신을 부리고, '내로다' 하니까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놓고 가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할 때 발금 때어놓는 발자취를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요? 또 끊임없이 땅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꼬리를 앞이 나왔다가는 사라지고 하지요? 그때마다 그 땅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따지려 합니까? 따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요.

또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할나도 쉬지 않고 몸 속의 기관, 세포들이 활동하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을 일하 다 의식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또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금세

### 동국대 불교대학원 강연 순서

"21세기에 사회의 불교화, 세계의 불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교교리 자체에서 실천적 요소를 추출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집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송석규 동국대총장은 지난 달 28일 오후 5시20분 동국대 동관에서 열린 불교대학원(원장 목정배) 주최 특별강연회에 참석, 21세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 "시대 선도하는 실천신행 절실"

송총장은 "오늘날 사이버집단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기성종교가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는 증거"라며, "불교인이 (보현행인)의 10대 행원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자연환경 보존 등에 모범을 보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총장은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교병인 설립, 화상(火葬)운동, 복지재단 양성, 교육사업 확충 등을 들었다.

### 한국종교협 조찬 강연 윤이홍 교수

"21세기에 종교가 당면한 과제는 도덕적 재건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교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윤이홍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지난 25일 오전 8시 서울 코리나호텔 로열홀에서 한국종교협회(회장 이재석) 주최 종교인 조찬연구회에 참석, '21세기에 당면한 종교의 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교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미신과

### 도덕적 권위회복이 당면과제

종교의 구분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되면서 종교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85년을 기점으로 종교인구의 급증시기-둔화시기 시작, 90년 도부터는 종교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향후 21세기를 5년 앞두고 종교인이 도덕 재건의 청빙이 돼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의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불회사 나한상 "인위적 훼손"

지난달 9월 전남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에서 발굴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오백나한상이 인위적인 훼손으로 파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미술자료) 제54호에 최용천 해연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이 게재한 '불회사 나한상 출토유

### 적 발굴조사 보고'를 통해 제기된 것.

최씨는 보고서를 통해 "석조 나한상은 웅희암(龜岫岩)을 재질로 한 5백나한의 일부였다는 점과 유물에서 보이는 인위적인 손상이나 타격흔 등으로 미루어 이들을 한꺼번에 파괴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나해 9월 불회사에서 출토된 석조나한상 머리부.

### 불회사 나한상 "인위적 훼손"

#### '미술자료' 54호서 최용천씨 주장

지난달 9월 전남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불회사에서 발굴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오백나한상이 인위적인 훼손으로 파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미술자료) 제54호에 최용천 해연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이 게재한 '불회사 나한상 출토유

### 지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 보내주세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현암스님 대담스님에게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아들이 되고, 돌아서면 남편이 되고 하지요

그걸 일일이 다 의식하면서 이 뭐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일체 만물은 다 그렇게 잠시 쉬거나 움직이지 않는 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돌고 도는 그 이치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내 육신이 그토록 오묘하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모르겠거든 숨을 들이쉬고 내 쉬는 것은 누가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나깨나, 이 일하고 저 일하는 동안에도 자동적으로 돌고 도는 그 동작을 내가 일일이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억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왔고, 지금 이순간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장본인이라 하든, 주체라 하든, 자성이라 하든, 공이라 하든 다 좋습니다. 주인공, 빌 공(空)이 주인공이라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니 그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쓰는 게 그만 또 걸리는 결과가 되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를 놓아라,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믿는 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 한국 사찰의 주련

한글: 七重寶樹圍金界 (칠중보수위금계) 一點燈輝伴白雲 (일점한등반백운) 寂寂法雲生片刹 (적적법운생편찰) 非非花雨散諸峰 (비비화우산제봉) 已無踪跡到人間 (이무종적도인간) (이무종적도인간)

권영환



### 진리 터득이 주는 기쁨노래

지어내고 부슬부슬 꽃비 산봉우리마다 흩날린다. 인간에 머문 자취가 끊어져서 이제는 이 얼굴도 내 모습 이 아니리라. 향연기 금로에서 피어오르고 꽃송이 발우에 만발한데 해일 천도복송아로 수역을

### 해설

좀 어려운 내용의 글이다. 찬찬히 음미하여 그 뜻을 감취려 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전의 위엄과 장엄한 분위기를 주련도 갖고 있는 듯하다.

위엄은 불법(佛法)의 탐구도 따지고보면 문계문계 피어오르는 구름 조각을 더듬어 보는 것과 다를 아니다. 진리란 읽고 배워서 알기 이전에 이미 내게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원군의 글씨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 귀절들 역시 발우에 만발한 꽃 같은 진리의 터득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기쁨 이전의 기쁨을 찾아 우리는 정진해야 할 것이다. <안동 경인중 교사>

### 학술단신

#### 미륵사상 본질 분석

#### 한국사상사학 6집

한국사상사학회(회장 박성봉)는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를 주제로 김상홍박사 고회기념 특집 (한국사상사학) 제6집을 발간했다.

#### '불교 복지 논총' 창간호 승가대 복지학회 발간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학회(회장 혜용)는 불교복지의 확장과 학문적 정립을 위한 학회지 '불교 복지 논총'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번 논총에는 교수는단으로 헤도스님의 '호스피스에

#### 대해서', 김용철교수의 '사회복지원조의 전문성 제고방향에 관하여', 조성희교수의 '21세기를 대비하는 불교복지의 방향'을 비롯, 정법, 혜용, 해문스님의 학인논단, 견우, 일화스님의 졸업생논단이 수록돼 있다.

#### 문화유산개발 심포지엄

#### 전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의 문화유산과 개발방안 심포지엄'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전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연구원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최철교수(전남대)와 이종민 연구실장(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광주·전남의 문화유산과 잠재력', '광주·전남의 문화유산 육성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 1995 삼화불교대학 통신생 모집안내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자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불 교 학 과	2년	• 약간 20명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조계종 승려 포교사
	4년	• 통신 2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 통신 20명 • 주간 3명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타종승려 포교사도 가능)
중 국 어 과	2년	• 약간 20명 • 주간 5명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출가희망자
불 교 미 술 과	2년	• 주간 3명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 통신 20명 • 주간 5명	• 반명함판 사진 5매	

##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 8. 본교 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 91. 8. 본교 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 7. 국가인정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4월 7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2026-8, 511-1080)

주소: 우편번호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

# 삼 화 불 교 대 학